

# 치목마을 '삼베짜기' 道무형문화재 지정 눈 앞

무주군, 전북도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예고

무주군 치목마을 주민들의 오랜 유산으로 꼽히는 치목삼베염색조합 법인 '삼베짜기'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치목삼베염색조합법인 '삼베짜기'가 지난 15일자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을 예고 받아 무형문화재 고시를 앞두고 있다.



무주군 치목마을 주민들의 오랜 유산으로 꼽히는 치목삼베염색조합 법인 '삼베짜기'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에 따라 '삼베짜기' 지정예고 기간 이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가 받게 된다. 한풍루 보물 승격지정, 무주 대불리 마애삼존보살좌상 등 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어 무주군의 잇따른 쾌거다. 치목마을 '삼베짜기'는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각각의 능력 정도에 따른 분업화가 이뤄진다. 실 만들기, 베짜기 등 분야별 기초에서부터 완성단계까지 수십 년 동안 체득해 나가는 전체 과정이 마을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만 아니라 마찰에 대한 내구성이 커 세탁할 경우 손상이 적은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삼한 시대부터 선조들이 순수 길쌈을 통해 입어 온 옷감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20년 3월 전라북도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며, 전라북도 문화재

평가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해 바 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팀 임정희 팀장은 "적삼면 치목마을의 삼베짜기는 삼베짜기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와 역사성과 문화성, 기술성 등을 내포한 중요한 무형유산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군 전통 문화의 정체성이 잘 깃들여 있어 무주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해 준다"며 "소중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후대에게 전승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목마을의 전통문화인 삼베짜기는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수확을 하며, 가을이면 마을 공동체로 실을 삼고, 길쌈을 하여 마을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치목삼베염색조합법인으로 조직화 됐으며, '삼베짜기' 기술은 오랜 역사를 지닌 마을의 전통문화로 평가된다.

삼베작업장(226㎡)과 사무실(66㎡)을 갖추고 있으며, 태권도선수권대회와 무주 반딧불축제 등 각종 행사 또는 초·중·고 대학교와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삼베짜기 시연도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미디어퍼포먼스 'IT SHOW-잇쇼'

김제문화예술회관, 29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7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미디어퍼포먼스 'IT SHOW-잇쇼'가 펼쳐진다.

'잇쇼'는 IT(정보통신기술)와 SHOW(공연)가 결합된 신개념 공연으로 프로젝션 맵핑과 미임, LED댄스, 합창 등 다양한 컨텐츠에 미디어를 기반으로 대사 없이 몸짓과 장면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난버벌 미디어 퍼포먼스이다.

세계여행의 시작인 공항에서 여행을 꿈꾸며 일하는 네 명의 정비공 중 한 명이 우연히 펼친 티켓을 얻게 되어 펼쳐지는 희망과 상상 이야기를 미디어아트 요소에 코믹

마임과 파워풀한 비보잉 댄스, 화려한 LED 조명 댄스로 익살스럽게 구성했으며, 영상과 음향을 통해 현실과 미디어아트의 경계를 무너뜨려 착시효과를 주는 등 색다른 충격과 신선함을 선 보일 예정이다.

제주 헤비치 아트페스티벌 쇼케이스 우수상,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 브라질 남미투어 등 국내 및 해외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장르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다.

관람권 예매는 19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박미애 씨, 道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 인정 예고

전통자수 맥 이어가기 위해 고향 고택서 전수활동에 힘 쏟아

고창군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45년 이상 전통 자수의 길을 걸어온 박미애(朴美愛, 1959년생) 씨를 지난 15일자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자수장'(민수, 전통자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즉, 어머니와 자매들의 교류,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한상수, 한영화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섬세하면서 화려하며, 적절한 색상 배합과 잘 짜인 구도의 전통자수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각종 전통 공예대회에서 수상했고, 고창자수 기적전 6회 및 개인전 등 각종 전시와 꾸준한 작품활동을 통해 지역 내 자수 보급에 힘써 왔다.

박미애 씨는 1990년 어머니로부터 고창자수 공방을 인수받아 운영했고, 고창자수박물관 공방장, 행정실장 역임 및 현재는 고창전통자수 전수관과 체험장을 운영하여 자수의 활성화 및 후학 양성 등 전통자수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통문화의 맥을 잇기 위해 어렵고 취약한 환경 속에서 꾸준한 작품 활동과 전승 활동을 통해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게 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지역 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켜온 분들이 모두 행복하고 활력 넘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박미애 씨에 대해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45년 이상 전통 자수의 길을 걸어온 박미애(朴美愛, 1959년생)씨를 지난 15일자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자수장'(민수, 전통자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자수장 박미애 시연 모습)

# 장수군, '백화산고분군' 진흥 도모

보존·유적 활용방안 마련 위한 학술대회 가져

장수군이 지역 대표 가야문화유산인 백화산 고분군의 보존 및 유적 활용방안을 위해 지난 15일 군민회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백화산고분군은 최근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통해 장수 지역이 고대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힘의 좌우를 겨뤘던 가야세력의 중심지로 확인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백화산고분군 유적지에는 120여기의 중대형 고총고분이 자리하고 있으며 도굴피해가 심각했음에도 단야구·격쇠 등이 출토돼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와 가치(전상학, 전주문화유산연구원)로 시작한 이번 학술대회는 △장수 백화산 고분군 출토 철기류의 가치와 의미(유영춘, 군산대가야문화연구소), △토기로 본 백화산고분군(박삼배, 순천대박물관), △함안판이산 고분군의 정비성과와

과제(정해민, 함안군청),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정비성과와 과제(김기홍, 고령군청) △장수 백화산고분군의 보존정비와 활용방안(안선호, 일광대)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발표 후에는 이재운(前 전주대,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장)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을 통해 백화산 고분군의 진흥을 도모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전문가들뿐 아니라 청중들의 의견을 충분히 갖는 시간을 마련해 장수군민이 바라는 진흥방안이 포함되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이종훈 부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가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등 역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하는 중요시기에 이번 학술대회를 열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술대회를 통해 지역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제33회 정읍사문화제 '부도상 후보자' 추천 접수

매년 가을 정읍에서는 백제시대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한 문화제가 열린다.

제33회 정읍사문화제는 오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정읍사문화제 제정위원회(이사장 조택수)는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제33회 정읍사문화제의 '부도상(婦道賞)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정읍사 부도상 상사는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부부 사랑과 아름다운 부덕(婦德)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다. 남편과 부모를 공경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뤄 사회적, 교육적으로 귀감이 되는 여성에게 주어진다.

부도상 추천 후보 대상은 5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읍·면·동장이나 기관단체장, 봉사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사)정읍사문화제 제정위원회 사무국에 접수하면 된다.

부도상 시상식은 9월 24일 제33회 정읍사문화제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